

일주론



**불교출판협회장 연임**  
불교출판문화협회장 원택 스님은 2월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두산워브 회의실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2대 회장에 연임됐다.



**봉국사 주지 취임법회**  
성남 봉국사 주지 효림 스님은 3월 8일 오전 10시 30분 봉국사 심경당에서 주지 취임법회를 봉행했다.(031)755-0329



**보건학 박사학위 취득**  
대구 송학사 주지 정환 스님은 2월 21일 대구한대에서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가 노화정도에 미치는 영향' 논문으로 보건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봉은사 신도회장**  
대우건설 김건호(법명 우암) 고문이 2월 25일 서울 봉은사 13대 신도회장에 취임했다. 김 고문은 건설교통부 차관과 한국공항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새봄맞이 특강**  
한국불교연구원 정병호 원장은 3월 7-9일 한국불교연구원 법당에서 '현대인의 불교'를 주제로 2007 새봄맞이 불교 특강을 개최한다.(02)762-5624

인사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학사부총장 겸 대학원장=한진수 △정각원장 겸 기숙사관장=종호 스님 △불교대학장 겸 불교대학원장=법산 스님 △문과대학장=정성호 △이과대학장=김혜중 △법과대학장=이상영 △사회과학대학장 겸 행정대학원장=양영진 △경영대학장 겸 경영전문대학원장=이병철 △생명과학대학장 겸 실험농장장=이명훈 △공과대학장 겸 정보산업대학장=조성구 △사범대학장 겸 교육대학원장=김혜숙 △예술대학장 겸 문화예술대학원장=김방욱 △영상대학원장=차승재 △언론정보대학원장 겸 국제정보대학원장=강성운 △교양교육원장=박명관 △국제교육원장 겸 국제화추진단장=김일중 △사회교육원장=정창근 △전략기획본부장=이형우 △학사지원본부장=이상일 △사업개발본부장=곽노성 △운영지원본부장=백경선 △경영관리실장=조의연 △입학처장=고유환 △산학협력단장=박형무 △정보관리실장=김양우 △학생경력개발원장 겸 취업지원센터장=조훈영 △중앙도서관장=석원경 △캠퍼스기획단장=김홍일 <경주캠퍼스> △부총장=손동진 △정각원장=법해 스님 △불교문화대학장 겸 불교문화대학원장=이만 △법정복지대학장 겸 사회과학대학원장=오영석 △인문과학대학장=이한구 △과학기술대학장=이동웅 △경영관광대학장=김오우 △사범교육대학장=백경민 △한외과대학장=김장현 △의과대학장=이규훈 △전략기획본부장=이계영 △학사지원본부장=이시영 △운영지원본부장=신익중 △입학처장=심규박 △산학협력단장=이동웅 △정보관리실장=오승현 △학생경력개발원장=박상범 △도서관장=이정일 △국제교류교육원장=김영철 △사회문화교육원장=김세곤

유건집 교수 '한국 차문화사' 펴내

"역사가 없는 민족이 없듯, 역사 없는 학문도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이어진 차 문화에 대한 역사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안타깝게 느껴져 이렇게 직접 책으로 엮게 되었습니다."

재인용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흔히 조선시대에는 차 문화가 사라졌다고 하지만 고려시대 불가(佛家)의 차 문화가 조선시대 유가(儒家), 즉 선비들의 문화로 옮겨왔을 뿐 그 맥맥은 면면히 이어져 왔습니다. 책에 실린 조선의 차인만도 150명이 넘습니다. 이들이 남긴 수백여 편의 다시(茶詩)를 연구하는 것이 또 다른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학문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역사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차의 문화적 기반이 취약한 것'이라고 말하는 유 교수는 "역사를 바로 아는 것이 곧 차의 정신을 바로 아는 길"이라고 강조한다. 여수령 기자

전보삼 교수 대불련 총동문회장에 선출

"대불련동문회의 숙원인 자비나눔공동체 법인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월 24일 대전 유성구 아드리야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 정기총회에서 제22대 총동문회장에 선출된 전보삼 교수(사진)는 "이날을 위해 전문 분야별 모임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클 적절한 목소리도 내는 등 사회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전문 분야별 모임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대불련 활성화 위한 측면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는 전 관장은 "대학 신입생 토크스태이 등의 프로그램 지원, 장학금 확대, 대불련과 동문회 네트워크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동두천 공무원불자회 새회장 조희성씨



동두천시청 공무원불자모임 삼보회(지도부사 옹하)의 신임 회장에 조희성(사진) 사회복지과장이 선출됐다. 조희성 과장은 "법회 참여도를 높이고 회원 배가 운동을 펼치는 한편, 큰 스님 초청 법회와 회원 가족과 함께하

"인문학 활성화 최선 다할 터"

성태용 우리는선우 이사장 학진 인문학단장에 임명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허상만)의 인문학 분야 연구지원사업에 심사·선정하는 인문학단장에 3월 1일자로 성태용 교수(전국대학총회)가 임명됐다. 우리는선우 이사장·사진이 임명했다.

그간 인문학단장으로 활동하던 조성택 교수(고려대 철학과)의 뒤를 잇게 된 성 교수는 "우연히도 불자 교수가 연이어 중임을 맡게 됐다"며 "1000여명이 넘는 지원금을 집행하는 자리라 부담이 크다"고 소감을 밝혔다.

인문학단장은 2년 상근직으로, 학진의 인문학분야 연구지원사업의 심사·평가·선정 등을 맡게 되는 자리다. 학진은 지난해 2월 산하 사업단을 인문학·사회과학·자연과학·공학·생명과학 등 6개 체제로 개편하고, 공모와 추천을 통해 각 분야 전문가를 단장으로 위촉하고 있다.

성 교수는 "부처님 가르침처럼 공명정대하게 심사해 지원금을 배분함으로써, 인문학 분야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수령 기자

불교인재개발원 정책포럼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인재개발원(이사장 허경만)은 2월 27일 불교인재개발원 교육장에서 2007년 제2차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농업 위기와 사찰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권영근 소장(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이 발표자로 참여해 사찰과 농촌의 상생 관계를 모색했다.

동산불교대 졸업식 봉행



동산불교대학(학장 무진장)이 2월 25일 2007학년도 상반기 졸업식을 봉행했다. 불교학과 47명을 포함해 불교다도학과(4명), 불교장래문화학과(4명), 불교한문학과(3명), 대학원 법사과정(4명) 등 62명이 졸업했다. 동산반야회 김재일 회장은 "활발한 전법 활동을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

고려대불자교우회 회장단 취임법회



고려대학교 불자교우회 회장 유중근(가)가 2월 2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신임 회장단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해홍 스님과 이채영 씨(외이 로지스틱스 대표이사, 흥승기 불교방송 사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해홍 스님은 "앞으로 대학별 불자회가 장립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책특별보좌관에 박영순씨 임명



조계종 총책특별보좌관에 박영순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이 2월 26일 임명됐다. 박영순 총책특별보좌관은 전국 대학생대표 자립의회 부의장,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총무원장 장관 스님은 "사회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종단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구 대성사 금강불교대 입학식 봉행



대구 대성사(주지 도산)는 부설 금강불교대학(학장 윤수현) 입학식을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등 중대 지도자 스님과 신도회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3월 1일 오후 7시에 봉행했다. 이날 금강불교대학에는 불교학과 보통과정 100명과 고급반 90명이 입학했다.

영터리 빙의 이야기가 난무하는 시대에 전하는 따끔한 일침! "빙의 이전 제대로 알아!" 귀신에 관한 최고의 참고서 **빙의의 시대** 지은이/일광(逸廣) 신국판/312쪽/9,500원 **정신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무당이 되기 전에 앓는 신병(神病)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 무당하기 싫은 분, 귀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신경통이나 좌골신경통으로 오래동안 고생하시는 분, 스님이나 무당으로부터 귀신이 몸에 있다고 하여 고민하시는 분은 반드시 이 책을 읽고 상담하여주세요.** 출생의 비밀 윤희는 왜 하는가? 여성상위시대와 빙하기는 왜 오는가? 150년후 일본은 침몰하고 없어진다! 전국에서 이름있는 도사를 모셔 조상의 묘를 썼는데 왜 발복이 없는가?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 **우리출판사** Tel. 02-313-5047

화제의 신간 21세기 新 개념의 한방처방학!! **四柱命理韓方處方學** [I, II 권] 새 시대에 세계의 의학계를 선도할 '사주명리학한방처방학' 이 드디어 출간, 세상에 나왔다! 전통 한의학과 음양오행학을 연결!!! 新 한의학 이론을 체계화!!! 누구나 신개념의 한방처방학이 환눈에 쏙쏙! **한의학과 음양오행학 사주명리학을 접목시켜 신구의 의학이론을 창시하였다 이 신구의 의학이론에서는 사주음양오행에 기초를 두고 인체 장부의 여실을 알고 개개인의 체질을 판단하고 처방을 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그 뿐만 아니라 인간의 미래를 예측하고 인간의 건강과 질병의 여부를 미리 알고 이에 대처하는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다.** **전국 서점 판매중!** 徐昇煥 지음 / 4x6배판/양장본 I 권 880쪽, II 권 680쪽/ 각 권 5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新사주학 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사 **사주학의 목적은 년월일시 네 기둥을 정하여 인간의 타고난 운명을 규명해 보자는 것이 되며 역에서 이르기까지 역의 신비로 천지의 이치를 규명하고 조화로써 하늘의 기밀을 누설하지 말고 신비롭게 감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므로 경술의 가르쳐 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미래 사주학 핵심정리** 4x6배판/이선중 지음/25,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4x6배판/이선일 전효일 공저/25,000원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신국판/양장본/김성진 지음/30,000원 **적천수 형의(上·下)** 신국판/양장본/공유성 지음/40,000원 **관음출판사** Tel. (02) 921-8434 Fax. (02) 929-3470 **관음출판사** Tel. (02) 921-8434 Fax. (02) 929-3470 **관음출판사** Tel. (02) 921-8434 Fax. (02) 929-3470 **관음출판사** Tel. (02) 921-8434 Fax. (02) 929-3470